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

임준 연구위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사기 조사전략 가운데 하나는 이제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집중하는 것임. 이러한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는 보험사기 유형이 변화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조기 인지하여 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하기 어렵다는 데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조세(탈세), 안보(테러) 등과 같은 위험통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조사 분야의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대처하고 있음. 보험사기 분야의 경우 현행 조사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 사례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사기 조사전략 가운데 하나는 기존에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집중하는 것임.
 - 특정 유형에 자원을 집중하게 되면 그 유형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그 결과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적발 성과가 제고되어 현행 보험사기 조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과신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기 조사전략은 보험사기 유형이 변화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험사기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조세(탈세), 안보(테러) 등과 같은 위험 통제(risk control)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함.¹⁾
- 본고에서는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분야의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random inspection) 사례를 소개함.²⁾

1) Malcolm K. Sparrow(1995),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Oversight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2) 세무조사 사례는 오윤·박명호(2007),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인용.

■ 미국은 탈세혐의자에 집중된 세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초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인 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이하 'TCMP')을 도입하였음.

- TCMP는 개인 및 개인 유사단체 등 개별납세자의 납세신고서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후에 신고서상의 납세순응행위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제도임.
 -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963년부터 1988년까지 3년을 주기로 개인, 소규모 법인, 조합 등을 대상으로 행해졌음.
- TCMP의 목적은 납세순응 수준을 측정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세무조사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활용하는 데 있었음.

■ 그러나 성실납세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 등의 문제로 198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음.

■ 그런데 TCMP 폐지 이후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00년에 다시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가 부활하였음.

- 도입 당시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4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음.
 - 첫 번째 방안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입하지 않는 것임.
 - 두 번째 방안은 무작위 표본 추출이 아니라 탈세 가능성이 높은 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
 - 세 번째 방안은 소규모의 무작위 표본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
 - 네 번째 방안은 매 3년마다 큰 규모의 무작위 표본 세무조사 실시
- 미국 국세청은 네 번째 안을 채택하고, 2002년 9월부터 2001년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세 신고서로부터 약 46,000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음.

■ 세무조사 분야의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는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단,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 방식과 조사 과정에서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kiri](#)